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인가?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이다. 그 변화를 불러오는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태풍의 눈이다.

현재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날로 돌아가 보자.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부근에서 두 발로 걸으며 삶을 시작한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 중동과 유럽, 인도와 중국으로 퍼져나갔고, 시베리아를 거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내려갔다.

불을 사용하게 되고 돌과 구리와 철을 사용하여 도구와 무기를 만들고,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지식 전달의 장치가기도 한 언어를 발명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불을 사용하게 되고 돌과 구리와 철을 사용하여 도구와 무기를 만들고,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지식 전달의 장치가기도 한 언어를 발명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 오늘날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수출이 높아 경제가 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순환 논리가 우리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산학협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연구소와 실험실에 하청을 주고 있다.

인류가 자신을 둘러싼 우주와 지구와 자연과 생명체의 원리를 구명하는 지적 행위가 과학이라면, 기술은 그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과학과 기술은 연결되어 있지만 과학에서 기술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 제품이 과연 자연과 인간의 삶

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이며 그런 삶이 가능한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주장은 낭떠러지를 향한 질주일 수가 있다.

그런데 과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같은 세계적 대기업은 계속 신기술 개발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미래의 유투피어를 그려 보일 것이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고 좋은 삶이 가능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적정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 이 문제는 단지 기업이나 투자자, 정부 관리들이나 과학기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학자·작가)

社說

지도부 맨 먼저 구성 국민의당 이제 시작이다

어제 국민의당 의원 워크숍에서 4선 의원 박지원 의원이 만장일치로 신임 원내대표에, 서울에서 당선돼 재선이 된 김성식 전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 방식조차 미궁에 빠져 있고,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책임론으로 진박-비박 갈등이 끊겨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맨 먼저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과거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시절에 이어 이번까지 원내대표 3선의 진기록을 세운 박지원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 관광객 靑문화전당으로 끌어들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야간촬영 코스, 셸프투어 코스, 야간 버스킹 투어 프로그램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김광욱 책임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광전 리더스 Info'의 '시민의 눈에 비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일'이라는 제목의 이응객 반응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연구원은 "문화전당을 경유한 사람들의 41.3%가 야경을 촬영하며 '예뵤다'를 언급한 것은 이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을 지냈고 목포에서 18대 이후 내리 당 선됐다. 국정 경협과 정치 경륜까지 갖춰 3당 체제를 리드한다는 목표를 세운 국민의당을 이끌 최적임자라는 평이다.

원내대표에 추대된 직후 그의 일성은 '일하는 국회'였다. 또한 "19대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이었다. 때로는 다른 당과 협력하면서 견제도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당 내부를 향해 "당리당략적 목표나 안철수 대표의 대권 가도에 맞춘다면 19대 국회의 똑같이진다"라고 한 말 또한 의미심장하다.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어린이문화원(29.5%)이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넓고 쾌적한 키즈 카페' 정도로 인식한 점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겼다.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성이 높은 장소로는 동명동(38.5%), 충장로(29.1%)가 많이 꼽혔다. 연계 방문지로 손꼽힌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양림사직권은 비율이 아주 낮았다.

따라서 문화전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문화전당과 대인시장 및 양림동 등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황사와 미세먼지



박진우 보라안과병원 원장

표현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먼지바람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역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 이하이다.

몇 년 전부터는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미세먼지농도를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관측하여,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농도를 1m에 몇 그램이 포함돼 있는

지 정밀 장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

불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특이하고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는 황사와 건조한 공기가 자극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막염은 눈의 이물감과 충혈, 따가움,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때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고 증세가 심할 경우 한자위가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황사철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다.

얼마 전 병원을 방문한 직장인 김모 씨

는 며칠 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날에 나들이를 갔다가 렌즈를 착용한 눈에 결막염이 생겨 토끼처럼 별것 같게 충혈된 눈으로 병원을 찾았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안약을 미리 넣는 다거나 외출 후 소금물로 눈을 씻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문의의 처방 없이 안약을 함부로 점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소금물 또한 눈에 좋지 않다.

오랜만에 축축한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다. 이 비에 황사와 미세먼지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 진로실 창문 밖으로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기고

아름다운 전남, 매력 있는 전남 만들기



김연일 전남도의원

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천혜의 명소가 많다.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따뜻한 기후, 바다, 섬, 해안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먼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움과 인간다움의 조화와 어우러짐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디자인하며 기존의 것을 융합하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

즈, 이탈리아 베네치아 물의 도시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드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멀라이언 파크나 독일 라인강의 인어공주 전설처럼 상징물과 이미지를 만들거나 전설, 영화, 드라마, 추억 등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잠시 들러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더 머무르고 싶고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휴먼요소를 창조해야 한다.

때 현재의 관광객이자 미래 잠재적 수요자인 아이들이나 학생, 젊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이외에도, 관광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화장실과 안내소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도 키워야 한다. 외적이고 보이는 것만 개발하면 안 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서로 다른 존재의 별난 동거로 오고 싶은 전남, 살고 싶은 전남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No-eung-gu) advertisement for a festival. Includes text about the festival, a quote from a local artis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City)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